

재해 시의 한층 원활한 외국인 주민 대응을 향해서

- 2012년 총무성 다문화 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개요 -

현재 상황과 과제

- 동일본 대지진 등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대응의 검증에서 -

① 외국인 주민의 정보 파악에 과제

재해 시의 외국인 주민 대응 시에 필요한 외국인 주민의 정보 등 실태 파악이 불충분

② 다문화 공생을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활용에 과제

재해 시의 다언어 대응을 포함해 평상시부터 다문화 공생의 역할을 맡는, 전문적 인재의 육성이나 외국인 주요 인물의 활용 등이 불충분

③ 지역 내에서의 연계에 과제

지역국제화협회나 NPO 등 지역내의 다양한 주체와의 사이에서 재해시의 외국인 주민 대응에 대한 연계가 불충분

④ 현 영역 및 나아가 광역에서의 연계에 과제

재해 시 시구청촌이 단독으로 외국인 주민을 세심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그 지원 체제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대규모 재해를 생각하면 도도부현을 초월하는 광역적인 연계가 불충분

⑤ 정보의 다언어화 체제 등에 과제

제도적 정보나 전문 정보의 다언어화, 소수 언어로의 번역 등이 곤란. 알기 쉬운 일본어의 이용도 불충분

⑥ 정보의 확실한 전달에 과제

정보를 다언어화해서 발신·제공해도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엔드유저에게까지 꼭 도달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⑦ 평상시부터 외국인 주민의 지역에 대한 연계에 과제

외국인 주민의 평상시의 지역활동 등의 참가나 재해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

제언

1 외국인 주민의 실태 파악

▶ 시구청촌 등이 외국인 주민의 지역에서의 주거상황 등에 대해서, 외국인 커뮤니티나 관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평소부터 그 파악에 힘쓰는 것이 불가결

2 중핵적인 인재육성과 활용

○ 전문적인 인재 육성과 활용

▶ 지역에 있어서의 다문화 공생을 지탱하는 전문적인 인재나 자원봉사자의 육성, 확보를 더욱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간에서의 파견, 융통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

○ 함께 활동하는 외국인 주민

▶ 지원하는 측으로서의 외국인 주민의 잠재적 대응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특히 외국인 커뮤니티의 주요 인물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중요

▶ 또한, 지역의 대학 등과 연계한 지원활동 등에 유학생을 참가시키는 것도 효과가 있다



3 관계자 간의 연계

○ 시구청촌에 있어서의 외국인 주민, 관계단체와의 연계 강화

▶ 외국인 주민과의 종합적 창구 기능을 하는 시구청촌은 다양한 분야의 중간적 지원 조직(지역국제화협회, 사회복지관계기관, NPO 등)과 다각적으로 연계해 재해시의 외국인 주민 대응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 자치체 내에서는 평소부터 국제 담당 부국과 방재 담당 부국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

○ 도도부현에 있어서의 관계단체와의 연계 강화에 의한 시구청촌 지원

▶ 도도부현으로서 시구청촌이 노력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분석해 필요에 따라 주지계발을 도모하면서 시구청촌으로의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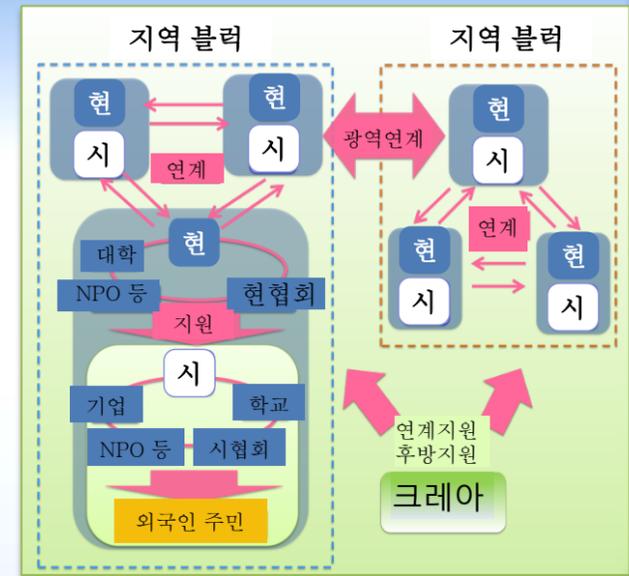
▶ 전문적인 인재의 육성, 인적 상호원조나 재해정보 등의 번역·통역 사무 등, 소규모 시구청촌에서는 대응이 곤란한 사무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이 관계단체와의 연계 등에 의해 지원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도도부현 영역을 초월하는 연계 노력 추진

▶ 재해 시의 인적 상호지원 등에 대해서 지역국제화협회를 활용하여, 우선은 지역 블럭 내에서의 연계를 도모하고, 대규모 재해에 대비, 나아가서는 광역적으로 블럭 간에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자치체 국제화 협회(크레아;CLAIR)는 전국의 지역 국제화 협회에 대해, 재해시 각 지역에 설치되는 재해다언어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등에 대한 후방지원 외에 블럭간 광역 연계 협정의 모델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재해 시의 자치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다언어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및 피난소 등에서 이용하는 지원 도구 등을 계속해서 정비하는 것이 필요



한층 충실·연계의 필요

4 다언어 정보 제공의 충실과 알기 쉬운 일본어의 활용

▶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역의 대학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번역·통역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재해시의 다언어 대응의 한계를 감안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보 발신에 대해서도 많은 외국인 주민이 이해하는 「알기 쉬운 일본어」를 활용해 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

▶ 또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방법으로는 외국인 커뮤니티 등으로의 전화·방문 등에 의한 정보 제공 및 외국인 주민에게 인지되어 있는 매체의 활용이 효과가 있다

▶ 국가의 재해 관련 정보도 국가의 책임으로 신속하게 다언어로 제공할 수 있는 짜임새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5 일상적인 노력의 중요성

▶ 외국인 주민이 재해 시에 적절한 대응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의 방재학습 지원을 세심하게 함으로써 계발을 꾀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외국인 주민의 방재훈련 참가를 촉구하여 외국인 주민을 상정한 피난소의 운영이나 재해 다언어지원센터의 설치를 포함한 더욱 실천적인 방재 훈련의 실시가 지극히 중요



센다이 국제교류협회 「동일본 대지진 시에 있어서의 센다이시 재해다언어지원센터의 노력」



재단법인 센다이국제교류협회에서는 2011년 3월11일의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센다이시가 센다이국제센터 내에 설치한 센다이시 재해다언어지원센터를 운영해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시민 자원봉사자와 관계 기관의 협력을 얻어 다언어에 의한 정보발신과 전화상담 대응, 피난소 순회, 대사관 및 미디어 대응 등의 활동을 했다.

재해 발생 3일째에 전기가 복구될 때까지는 난방도 없고, 사용할 수 있는 PC도 적은 상황으로 처음 6일 간은 24시간 활동했다.

정보발신은 주로 센다이시, 타 관계기관이나 지역 신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번역해서 인터넷, 라디오, 피난소 순회 중에 발신했다. 센다이시 재해다언어지원센터의 역할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으므로 매일 팩스로 들어오는 대책본부의 정보로부터 외국인 이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서 번역하였다.

정보의 번역에 대해서는 당일 사용하는 정보 등은 직접 하고, 양이 많은 것이나 시간이 걸려도 정확성이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NPO 등 원격지의 많은 단체에게 번역 작업을 분산시켜 협력을 구했다. 또한, 크레아의 협력 하에 다른 국제교류협회 등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통역이 부족한 언어의 통역이나 늘어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원을 받았다.

도쿄외국어대학 「동일본 대지진 시의 재해정보 지원활동」



도쿄외국어대학에서는 외국어대학다운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 교직원이나 대학원생 등의 언어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해 등록하고 있다. 또한, 다언어·다문화 사회전문인재 양성강좌를 개강해 자치체나 국제교류협회 등의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사회 코디네이터 및 외국인 상담활동 등의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통역자를 양성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시에는 당일 번역팀을 구성해 재해정보를 번역해 22언어에 의한 「다언어재해정보지원사이트」를 구축했다. 언어 자원봉사나 커뮤니티 통역에 더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도쿄외대 OB, OG, 원어민의 참가에 의해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했다.

당초에는 센다이시의 재해정보, 그 후에 방사선 피폭에 관한 기초지식,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알림 정보의 번역, 일본번호사연합회의 전화법률상담 전단지의 번역 및 트리오픈(삼자통화)에 의한 통역을 했다. 또한, 해외거주자가 인터넷을 활용해 참가함으로써 계획정전 등으로 일본에서 작업이 정체된 때에도 해외에서 번역을 하는 등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 지진 다언어지원센터의 노력」



한신·아와지 대지진, 니가타현 주에쓰·주에쓰 연안 지진에서의 활동 경험으로부터 NPO 법인 다문화공생 매니저 전국협의회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에는 당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 지진 다언어지원센터」를 피해지의 전국 지정촌 국제문화연수소에 설치.

재해 관련 정보의 발신에 대해서는 웹 사이트 등을 통해서 일본어와 외국어 9 언어에 의해 실시한 바, 47,072건의 액세스가 있었다. 전화에 의한 상담에서는 다언어 핫라인이라고 하는 일본어와 외국어 5언어에서의 대응을 하며, 방사능이나 재해지원 희망 등에 대해서 133건의 상담이 있었다. 또한, 이바라키현이나 미야기현과 같은 피해지의 국제교류협회 등으로 재해다언어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등의 스텝을 파견했다. 이들 활동은 2011년 3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속되어 운영 스텝은 총 456명에 이르렀다.

「주코쿠·시코쿠 블럭에서 실시된 실천적 방재훈련」

크레아(CLAIR)의 다문화공생 담당 연계 사업으로서 전국을 수 블럭으로 나누어 교육이나 재해지원 등의 테마를 설정해 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7 블럭중 5 블럭에서 재해관계의 테마가 다루어지고, 동일본 대지진시의 노력을 돌아보는 사례 발표가 있었던 것 외에도 주코쿠·시코쿠 블럭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는 것을 상정한 피난소 만들기, 재해다언어지원센터 설치·운영훈련이나 그 일환으로서의 피난소 순회 등, 외국인 주민도 참가하는 실천적인 방재훈련이 실시되었다. 자치체, 지역국제화협회나 NPO·국제교류단체의 직원 등이 참가하고 일반주민도 참가하는 재해시 외국인 서포터 육성에도 활용되었다.

시즈오카현 「지진방재 가이드북 「알기 쉬운 일본어」 판」

시즈오카현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시에 다언어로 정보를 발신했지만, 실제 직접 재해를 입었을 때에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은 곤란하리라는 염려가 있었다. 또한, 방재훈련에 참가하는 외국인이 적어 재해에 대한 대비를 외국인 주민 사이에 침투시키는 것을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주목해 일본어를 배우면서 방재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지진방재 가이드북 「알기 쉬운 일본어」 판」을 작성했다.

이것은 지진 전에 준비해둘 것이나 지진이 발생한 때에 취해야 할 대응 등을 알기 쉬운 일본어로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일본어교실에서의 교재로 활용하는 외에 자치체나 자주방재 조직에 배포해 일본인에 의한 활용도 기대하고 있다.

오이즈미마치 「문화의 통역 사업, 외국인 자원봉사팀에 의한 피해지 지원·방재를 축으로 한 협동 마을만들기」



외국인의 일본 체재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오이즈미마치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언젠가는 돌아갈 손님」이 아니라 「함께 지역에 살아가는 생활자」로 여기고 각각의 모국어로 일본의 관습이나 제도, 매너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의 통역 등록 사업」을 실시. 「습자와 일본의 매너 강좌」, 「일본요리의 기초와 쓰레기 분리수거 강좌」 등, 즐기면서 일본의 매너나 제도 등에 대해서 배우는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브라질인 커뮤니티 속에서 피해지를 지원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구원물자나 의연금 협력 외에 동북지역으로의 식사공급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인 참가가 있었다. 그런 활발한 움직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오이즈미마치에서는 평소부터 정보교환을 해서 행정과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쌓고 있는 브라질인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팀을 결성, 마을이 활동지원을 하고 있다.

나가오카시 「니가타현 주에쓰·주에쓰 연안 지진의 경험을 살린 백업센터」

나가오카시에서는 니가타현 주에쓰·주에쓰 연안 지진에서의 교훈을 살려 시와 사회복지협의회와 NPO의 3자간에 상호협정을 체결. 동일본 대지진 시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육아, 개호 등 외에도 외국인 지원의 전문성을 가진 NPO 등을 배치한 백업센터를 설립해 2011년 6월말까지 총 4천여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했다.

백업센터에 배치된 전문가 단체가 서로 연계함으로써 원활하게 기능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의 모친으로부터 기저귀의 SOS 요청이 온 때에 외국인지원 단체만의 대응인 경우에는 기저귀를 모아서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육아 NPO에 상담한 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능한 교체방법을 가르쳐주는 등,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하는 통상의 자원봉사센터만으로는 불충분한 전문성을 백업센터 방식에 의해서 보충, 다언어지원도 그 일부로서 연계할 수 있었다.

「다문화공생추진인재의 육성과 활용」

2006년 3월에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이 총무성으로부터 발표된 것을 계기로 지역에서 다문화공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같은 해 5월부터 전국의 지방자치체, 지역국제화협회·국제교류협회, 국제관련 NPO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크레아와 JIAM이 공동으로 다문화공생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좌를 개강. 강좌 수료생을 크레아가 「다문화공생 매니저」로서 인정하고 있다. 다문화공생 매니저는 외국인 주민에 관한 각종 제도나 과제에 대해서 이해하여 관계기관·부처 등과의 코디네이트 및 기획·입안 시에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재해 시에는 축적된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국인 주민지원 등이 기대되고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 시에는 각지의 다문화공생 매니저가 각종 지원 활동에 종사했다.

또한, 다문화공생 매니저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스킬업 강좌」에서는 다문화공생을 둘러싼 최신 사정의 공유나 각 매니저의 실천사례 발표 및 각 지역의 과제 등에 대한 의견교환 등이 이루어져 각각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크레아에서는 다문화공생이나 국제협력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는 유식자 등을 「지역전문화추진 어드바이저」로 등록해 국제화협회 등의 요망에 따라 다문화공생 또는 국제협력추진을 위한 연수회나 강연회 등에 파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해 시에 외국인 지원을 실시하는 인재의 양성 강좌 강연에 더불어, 피난소 숙박 훈련에서 피난소 순회 시의 외국인 피난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요구사항 파악 방법 등의 지도 등을 하고 있다.

- JIAM 및 JAMP과 공동개최하는 전문적 연수
<http://www.clair.or.jp/j/multiculture/jiam/index.html>
- 다문화공생 시책 담당 연계 추진 사업

- <http://www.clair.or.jp/j/multiculture/sokushin/ninaite.html>
- 지역국제화추진 어드바이저의 파견

- <http://www.clair.or.jp/j/multiculture/sokushin/advisor.html>
- 재해시 다언어지원센터 설치 운영 매뉴얼
<http://www.clair.or.jp/j/multiculture/tagengo/saigai.html>
- 다언어 정보의 제공

- <http://www.clair.or.jp/j/multiculture/renkei/tagengo.html>
- 외국인 주민 재해지원 정보
<http://www.clair.or.jp/tabunka/shinsai/>
- 등

■본 보고서의 내용 전반에 관한 문의처 :
총무성 자치행정국 국제실
(Tel : 03-5253-5527
E-mail : soumujichi@ml.soumu.go.jp)

■본 보고서의 지방자치체에서의 실시·노력에 대한 상담·문의처 :
(재)자치체국제화협회 다문화공생부
다문화공생과
(Tel : 03-5213-1725
E-mail : tabunka@clair.or.jp)